투데이 칼럼

北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정 복 규

논설위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그러나 공동성명 발표도, 기자회견도 없었다.

북한은 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평했다.

러시아 역시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의 밀착을 과시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북한과 러시아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귀국 다음 날 조선중앙TV는 러시아 방문 기록영화를 내보냈다.

평양 출발 장면부터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투기 생산 공장 방문, 군 비행장과 태평양함대 방문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린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러는 겉으론 뚜렷한 성과물을 내놓진 않았지만, 밀착 그 자체만으로도 서로의 가치를 한껏 과시했다는 평가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는 과거 북-소 관계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에 이어 38선 이북을 점령한 스탈린은 소련군 대위 출신인 김일성에게 전폭적인 힘을 실어 줬고, 김일성은 정권 수립에 성공한다.

이후에도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원을 계속 받아냈다. 6.25 전쟁 발발 1년 전엔 두 번이나 모스크바를 찾아 전쟁 승인을 요청했다. 심지어 휴전 여부에도 소련의 막강한 입김이 작용했다.

스탈린은 미국의 힘을 빼겠다는 이유로 전쟁이 지속되길 원했다. 김일성과 마오쩌둥은 일찍 끝내고 휴전하길 원했다. 그러나 스탈린은 미국의 관심을 동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휴전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김일성이 정적들을 숙청하고 유일 지배체제를 수립해 나갈 때에도 소련은 지원을 이어갔다. 이번엔 중국 견제가 절실했기 때문이다.

1953년부터 1984년까지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는 16억 달러, 우리 돈 2조 1,400억 원이 넘는다. 소련이 북한에 지원하지 않으면 북한은 완전히 친중 국가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완전히 소련과 손을 잡을 수 있다. 양 국가는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결국 북한은 중소 분열을 이용하면서 소련 지원도 중국 지원도 계속 받았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상황은 반전된다. 소련이 88년 서울올림픽 참가에 이어 1990년, 우리나라와 전격 수교한 것이다. 양 국은 대사급 수교 관계를 체결했다. 한소 수교 5년을 맞은 1995년엔 북한과 1961년에 맺은 군사조약을 폐기하기도 했다. 2000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나서며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로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대북 제재에 동참했다. 북한이 1차 핵 실험을 했던 2006년부터 6차 핵 실험에 이르기까지 유엔은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왔다. 러시아는 사실 탈냉전 이후에 남북한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사실상은 남한 중심 외교를 해온 셈이었다.

지난해 터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로소 북러에게 서로의 전략적 가치를 상기시켜줬다. 2년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러시아는 비어가는 탄약고를 채워야 했고, 북한은 국방력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 기술을 필요로 한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가능한 모든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 냉전 해체 이후 사실상 단절됐던 북러 관계는 2010년대 들어 크게 요동치는 국제질서 속에 점차 회복되는 모양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렇지만 북한의 가치보다 유엔 안보리에서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러시아가 상임이사국 지위를 포기할 정도까지 북한을 도와주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과 러시아는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때는 동맹으로 가깝게 지내다 배신자로 비난하며 멀어졌다. 두 정상의 행보가 주목된다.

사 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17.15%p 표차의 의미

지난 10월 10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다가올 내년 총선 민심의 '풍향계'라고 일컬어져 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자,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선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자릿수로 벌어진 표차의 의미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후보는 13만7066표(56.52%)를 얻어 9만5492표(39.37%) 국민의힘 후보를 17.15%p 차이로 따돌렸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같은 득표 차를 미리 예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대선 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표 차이가 작게 나거나 아니면 뒤집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 빠져나갔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패배에서 멈추지 못하고 더 수렁으로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 보궐 선거를 거쳐 대선과 지선을 걸쳐 쌓아 올린 자산이 오늘로써 완벽하게 리셋됐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패인으로 후보의 재공천을 꼽아 왔다. 지난 5월 김 후보는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며 열리게 됐다. 그 자리에 또다시 김 후보를 공천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정부와 여당의 국정 운영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크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전북 출신이다. 1967년 익산에서 태어나 전주 교동에서 자랐다.

그는 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경찰대학(5기)에 진학했다. 치안감으로 승진하여 본청 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하며 경찰청 차장으로 퇴임했다. 2023년 9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되었다.

케이팝 원조 걸그룹 김시스터즈

케이팝 원조는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한 3인조 '걸그룹' 김시스터즈다. 이들은 독특한 음악적 재능과 매력으로 미국 팬들을 사로잡았고, 오늘날 케이팝 스타를 위한 길을 만들어 놓았다.

김시스터즈는 '목포의 눈물'(1935)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1916~1965)이 결성한 김숙자·애자 두 딸과 조카 김민자로 구성한 3인조 걸그룹이다. 이난영은 딸들에게 영어 단어를 이해하기 전에 영어 노래 가사를 소리 나는 대로 배우고 암기하게 했다.

김시스터즈는 1953년 주한미군 공연장에서 데뷔한 뒤,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다. 1959년 4주 미국 공연으로 라스베이거스 무대를 흔들어 놓았다.

팝송뿐 아니라 한국 민요를 불렀던 이들은 색소폰, 베이스, 가야금 등 13가지의 동서양 악기를 능숙하게 다뤄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미국 최고의 쇼 CBS 텔레비전 '에드 설리번 쇼'에 모두 22회 출연했을 정도로 폭발적이었다.

한편 이난영은 한국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즈' 출신이다. 저고리 시스터즈는 조선악극단에서 활동했던 이난영 등 여자 가수들을 중심으로 결성돼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활동했다.

김시스터즈 김숙자(88)는 3인조 형제 그룹 김브라더스 남동생 2명과 함께 2003년 목포에서 열린 어머니 이난영의 수목장 안장식에 참석했다. 김숙자는 당시 동생들과 '이난영 추모공연'을 했고, 2016년·2022년 목포를 찾아 공연했다.

목포에 있는 '이난영&김시스터즈 전시관'에는 김시스터즈가 기증한 악기, 무대의상, 생활용품 등 104점이 전시돼 있다. 그리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네온박물관에는 '김시스터즈-원조 케이팝 스타들'이라는 글이 걸려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우크라·이스라엘 관련 대국민 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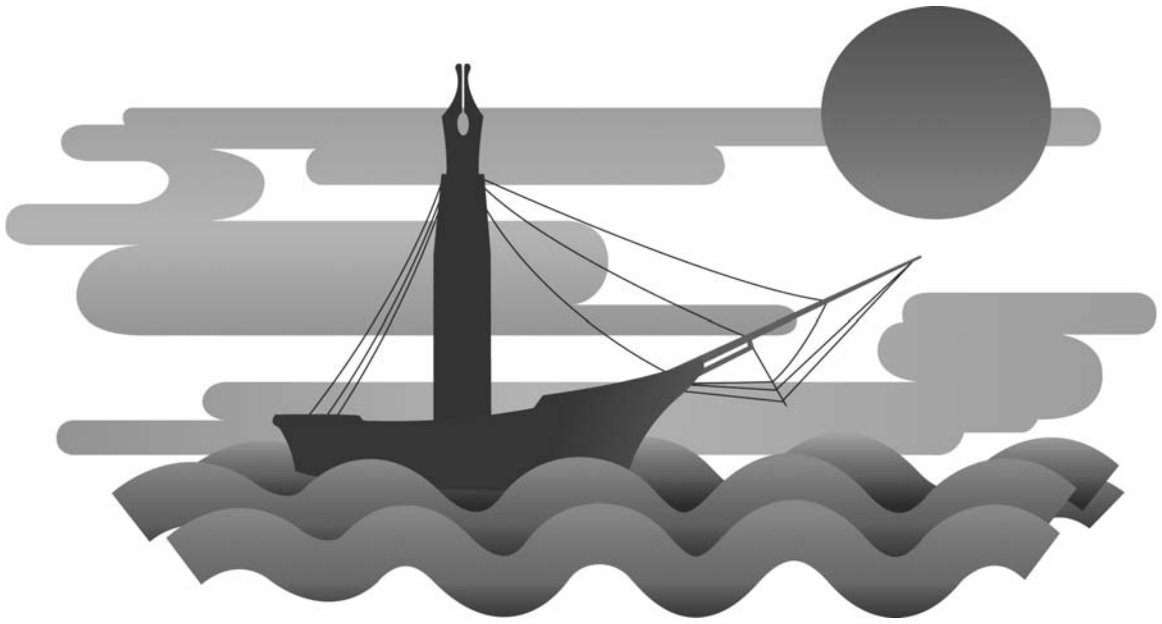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심 동맹인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가 승리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딩쉐샹 中 상무부총리와 악수하는 팀 쿡 애플 CEO

팀 쿡(사진 왼쪽) 애플 CEO가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딩쉐샹 중국 국무원 상무부총리와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팀 쿡 CEO는 "애플은 경제 세계화의 방향을 견지하고 있으며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등의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